

국토정책 Brief

KRIHS POLICY BRIEF • No. 432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박재길 • www.krihs.re.kr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의 인구동향과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남기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요 약

- ① 최근 은퇴시기에 접어든 베이비붐세대와, 그들의 자녀계층으로 본격적인 사회진입을 시작한 에코(echo)세대가 서로 다른 인구분포와 이동 특성으로 지역 내 세대전환을 유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정책이 필요
 - 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며, 에코세대는 베이비붐세대의 자녀계층으로 1979~199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컬음
- ② 베이비붐세대는 국토전역에 비교적 고르게 거주하고 있으나, 에코세대는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
 -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각 지역(시군구) 내 인구대비 12~14%의 비율로 국토전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에코세대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하여 지역 내 인구대비 2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③ 2000~2010년간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는 도시규모에 따라 인구이동 양상에 차별을 보임
 - 베이비붐세대는 서울 및 대도시 중심부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거나, 수도권 일대 및 소규모의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에코세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부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소규모의 시군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임

정 책 방 안

- ①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의 인구분포와 인구이동 패턴을 고려한 국토·지역정책이 필요
- ② 베이비붐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시군지역에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복지 서비스 등의 확충을 통해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③ 베이비붐세대의 주된 유출지인 수도권이나 대도시지역은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의 일시적 매각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세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
- ④ 에코세대가 집중적으로 유입하는 수도권·대도시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성장관리 정책이 필요
- ⑤ 에코세대가 유출되는 소규모 시군지역은 지역교육과 산업 간 연계강화를 통해 에코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

1.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의 인구구조

-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1963년의 9년간 태어난 출생코호트(2010년 기준 만 47~55세)로 한국에 급격한 인구 증가를 초래한 세대이며, 이들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는 1979~1992년 사이의 14년 동안 태어난 출생코호트(2010년 기준 만 18~31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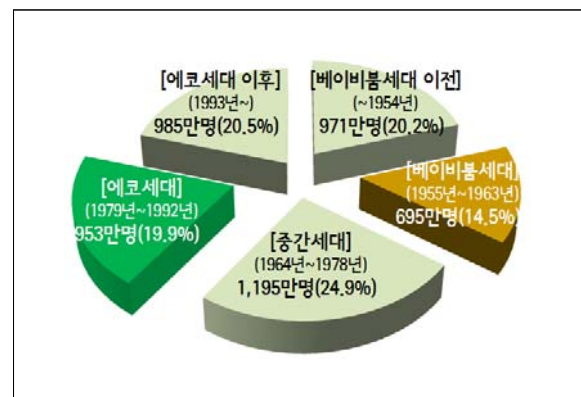
- 에코(echo)세대는 베이비붐 현상이 수십 년 뒤 2세 출산의 메아리(echo)로 작용한다는 인구 재생산 관점에서 정의된 세대임(통계청, 2012)

-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총합은 2010년 현재 1,64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4%를 차지함
 - 베이비붐 세대는 69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코세대는 95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9.9%를 차지하고 있음

- 베이비붐세대는 1960년생(2010년 기준 만50세)이 가장 많은 세대구성을 하고 있으며, 에코세대는 1981년생(2010년 기준 29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세대는 그간의 경제활동 시기를 마무리하고 은퇴시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고령인구로 급격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에코세대는 최근 본격적인 사회진입을 시작한 거대한 인구집단으로서 한국의 미래 경제사회에 주력이 될 세대로, 생산가능인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1 세대별 인구구성비율



자료: 통계청, 2010. 주민등록인구.

2. 지역별 인구분포

-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많은 수로 거주하고 있음
 -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경기도에 157만 명, 서울에 14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에코세대의 경우 서울에 222만 명, 경기도에 221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지역(시군구) 내 총인구 대비 비율의 경우 베이비붐세대는 강원도 일대 및 영남지역에 비교적 높은 비율로 거주하고 있으며, 에코세대의 경우 수도권, 충청지역, 부산·울산 지역에서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세대의 각 지역(시군구) 내 총인구 대비 비율은 12~14% 수준으로 전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며, 강원도 태백(16.1%), 정선(15.2%), 경북 포항(16.4%), 부산광역시 북구(16.8%), 동래구(16.1%) 등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임
- 에코세대의 각 지역(시군구) 내 비율은 총인구 대비 수도권 및 대도시가 16% 이상의 높은 비율로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군지역의 경우 10% 미만으로 분포하여 이중적인 구조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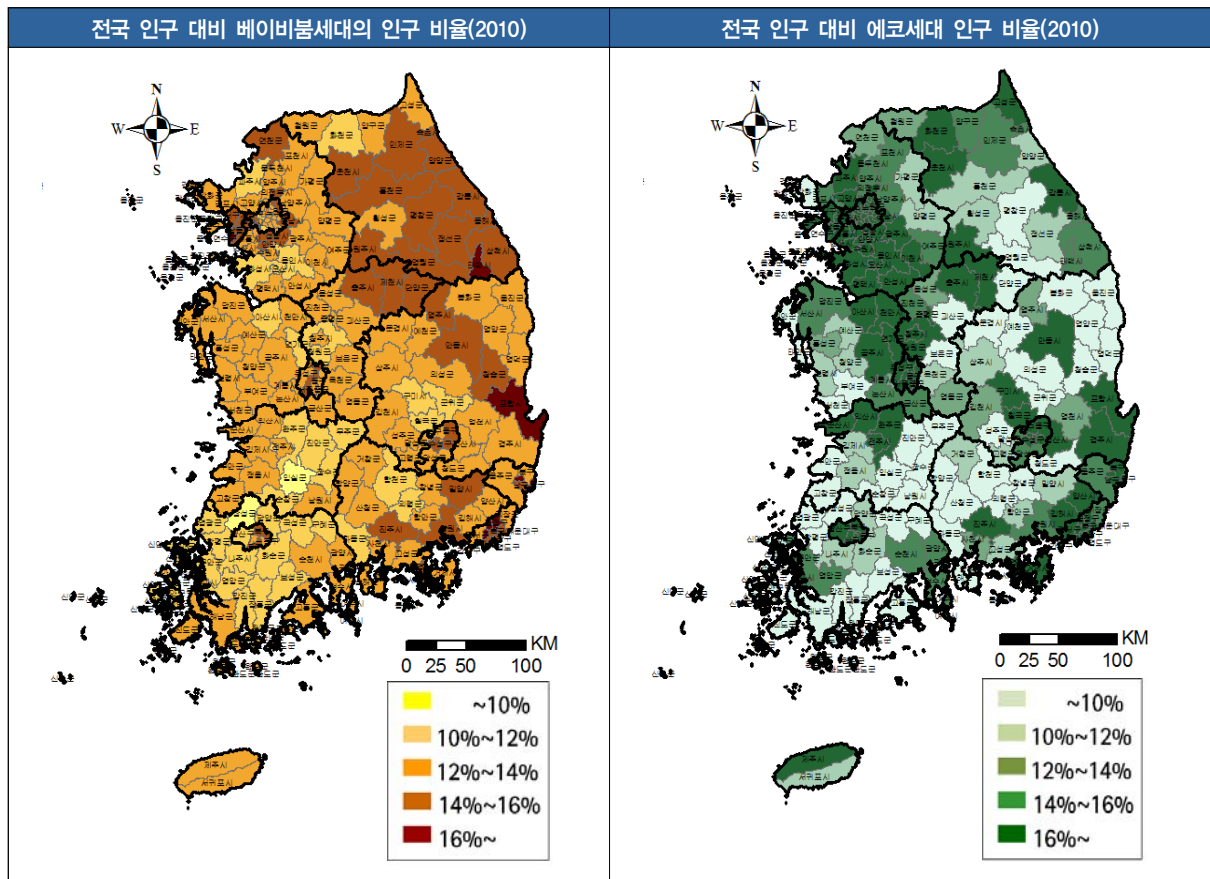
표 1 시도별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의 인구수 및 시도 내 비율(2010)

(단위: 천 명,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인구	47,991	9,631	3,393	2,432	2,632	1,466	1,490	1,072	11,196	1,464	1,496	2,000	1,766	1,729	2,575	3,120	528
베이비붐 세대	6,950 (14.5)	1,399 (14.5)	557 (16.4)	370 (15.2)	404 (15.3)	194 (13.2)	211 (14.2)	170 (15.9)	1,569 (14.0)	222 (15.2)	213 (14.2)	263 (13.2)	243 (13.8)	239 (13.8)	369 (14.3)	456 (14.6)	71 (13.4)
에코세대	9,526 (19.9)	2,224 (23.1)	681 (20.1)	479 (19.7)	539 (20.5)	314 (21.4)	330 (22.1)	201 (18.8)	2,206 (19.7)	258 (17.6)	284 (19.0)	385 (19.3)	303 (17.2)	240 (13.9)	454 (17.6)	540 (17.3)	88 (16.7)

자료: 통계청, 2010. 주민등록인구.

그림 2 전국 인구 대비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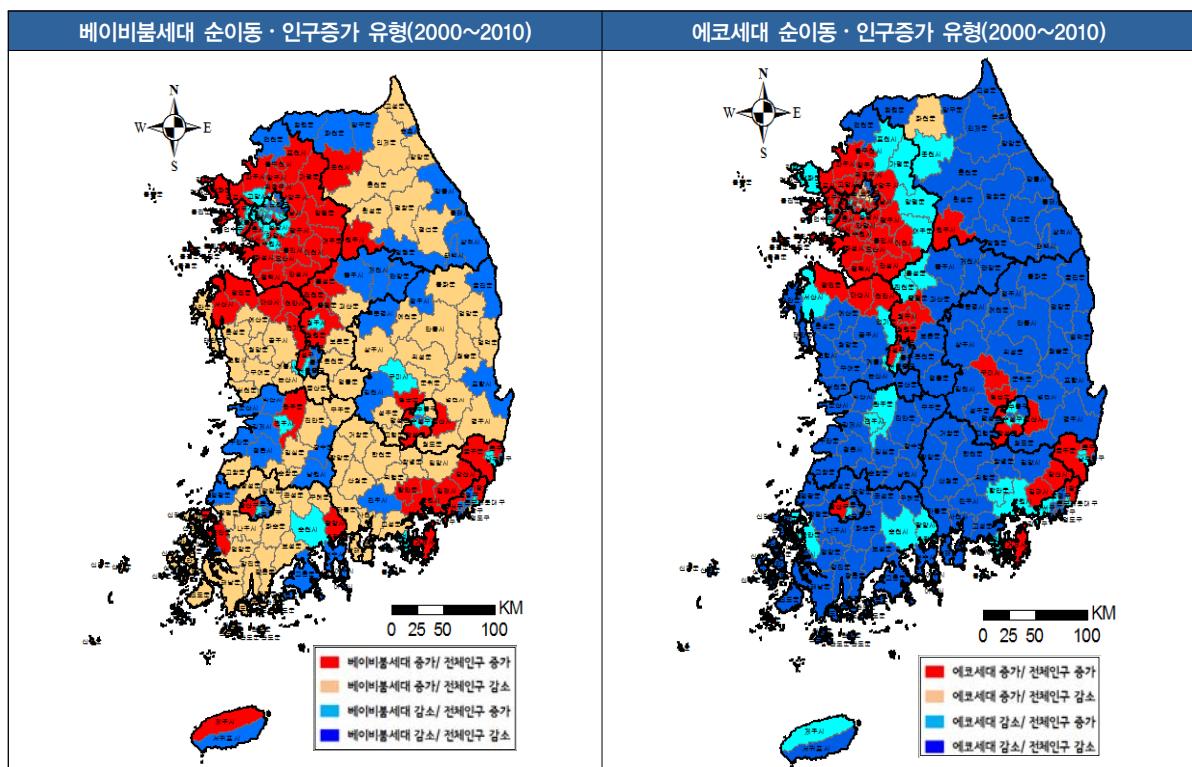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0. 인구가동통계.

3. 지역 간 인구이동

- 베이비붐세대는 서울 및 광역시 중심부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대부분 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전국 230개 시군구를 전체인구,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의 증감에 따라 유형화하면, ① 베이비붐세대 및 전체인구가 증가하는 시군구는 58개(25.2%), ② 전체인구는 감소하나 베이비붐세대가 증가하는 시군구는 69개(30.0%), ③ 전체인구는 증가하나 베이비붐세대가 감소하는 시군구는 39개(17.0%), ④ 전체인구 및 베이비붐세대가 동시에 감소하는 시군구는 64개(27.8%)로 나타남
- 에코세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대구광역시 인근, 부산·울산 광역시 인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충북 청주, 충북 당진 등 대도시 주변부로의 이동양상을 보이나, 소규모 시군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시·군·구 단위로 볼 때 ① 에코세대 및 전체인구가 증가하는 시군구는 62개(27%), ② 전체인구는 감소하나 에코세대가 증가하는 시군구는 9개(3.9%), ③ 전체인구는 증가하나 에코세대가 감소하는 시군구는 35개(15.2%), ④ 에코세대 및 전체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는 시군구는 124개(53.9%)로 나타남

그림 3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 순이동·인구증가 유형(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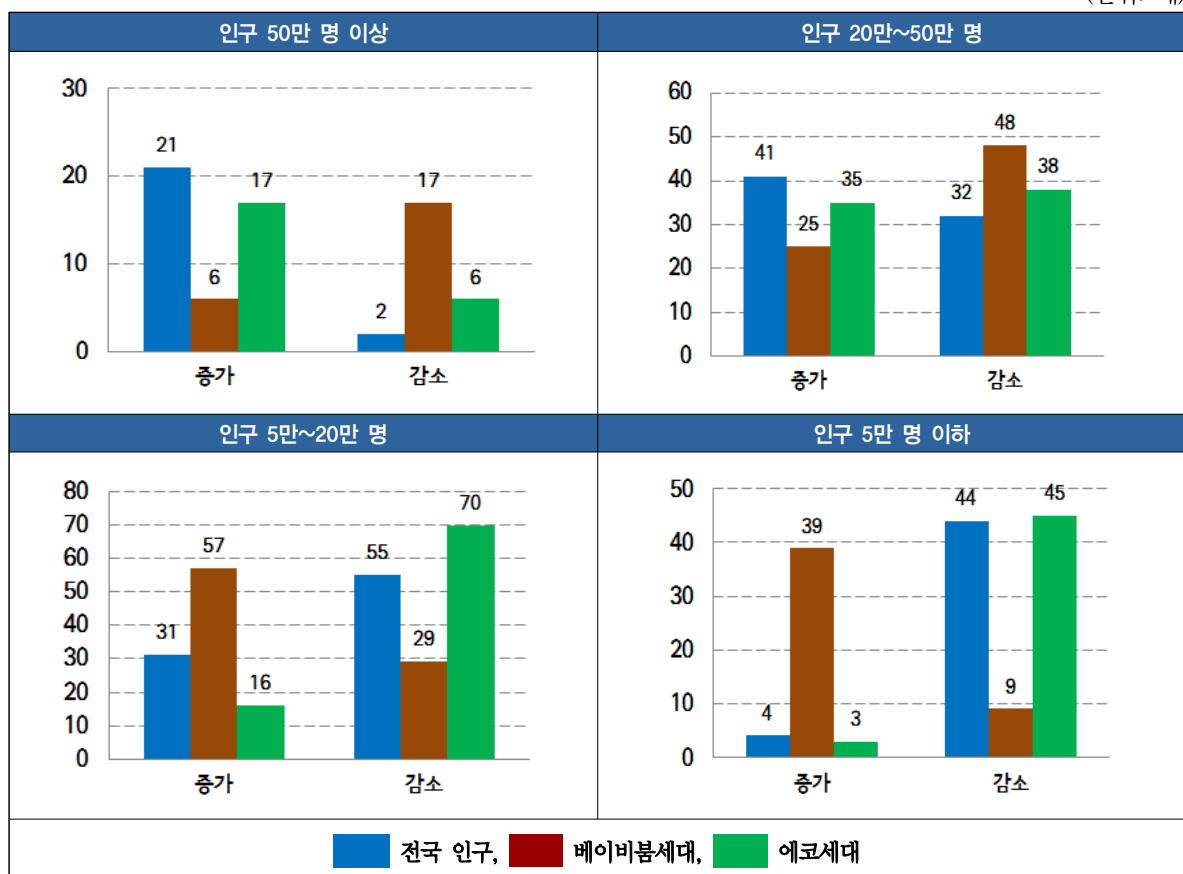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인구이동통계.

■ 전국인구와 에코세대의 증감현상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전국인구와 베이비붐세대의 증감현상은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임

-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구는 97개, 감소하는 시군구는 133개이며, 인구규모별로 50만 명 이상의 도시는 대부분 인구가 증가하며, 5만 명 이하의 군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50만 명 이상의 시군구 6개(26.1%), 20만~50만 명의 시군구 25개(34.2%), 5만~20만 명의 시군구 57개(66.3%), 5만 명 이하 시군구 39개(81.3%)에서 증가를 보이며, 시군구 인구규모가 작아질수록 베이비붐세대가 증가하는 비율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에코세대의 경우 50만 명 이상의 시군구 17개(73.9%), 20만~50만 명의 시군구 35개(47.9%), 5만~20만 명의 시군구 16개(18.6%), 5만 명 이하 시군구 3개(6.3%)에서 증가를 보이며, 시군구 인구규모가 커질수록 에코세대가 증가하는 비율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 인구규모별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의 증감 시군구 개수(2000~2010)

(단위: 개)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인구이동통계.

4. 정책적 시사점

- 향후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의 인구이동으로 지역 내 인구구조에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지역정책에서도 세대구성 및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 베이비붐세대 유출이나 에코세대 유입에 따른 급속한 지역 변화를 최소화하여 지역이 안정적으로 세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세대 특성에 기반한 차별적 지역정책이 필요
- 베이비붐세대가 많이 유입되는 시군에서는 맞춤형 일자리와 복지 등 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향후 도래하는 고령화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이 필요
 - 인구규모가 비교적 작은 군지역으로 이주하는 베이비붐세대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주거시설의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
 -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재취업을 위한 경력진단, 생애재설계, 기본역량 교육 등에 대한 단계적 정책 마련 및 여가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 구축, 주변 시설과의 네트워크 강화, 교육시설 확대 등의 지역정책을 추진
- 베이비붐세대가 유출되는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에서는 부동산·금융시장 거래 안정화 대책을 검토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인한 부동산·금융자산의 청산 러시(rush)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며, 금융시장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산처분시기를 분산하는 대책 등을 마련
- 에코세대가 유입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등의 지역에 대한 도시성장관리를 추진
 - 에코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
 -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에코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위하여 행복주택공급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소유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
- 에코세대가 유출하는 시군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정착 여건을 형성
 - 에코세대의 시군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대학 특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연계 강화로 고용 및 교육을 활성화

남기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책임연구원(kcnam@krihs.re.kr, 031-380-0244)